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2024
수능
국어

문학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6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가)

- 1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2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3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 4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5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6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 7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8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9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10㉠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11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12㉡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 1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2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3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4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5㉢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깐 하늘에 눈이 되어
 6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7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8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9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10실컷 먹은 후에
 11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12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13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14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15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16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B]
 17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MEMO

- 18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 19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 20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 21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 22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23 ㉠ 아이야 닷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 24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 25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 26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 27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 28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29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 30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 희황천지 : 북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나’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MEMO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음’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뱃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MEMO

(가)

1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2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3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4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5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6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7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8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1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2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3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4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5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6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7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8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9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10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11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12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13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14달집 게짬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15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1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MEMO

²“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³㉠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⁴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⁵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⁶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짝 엉켰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⁷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⁸㉡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⁹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¹⁰‘고기가 왔구나!’

¹¹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달려 들어간다.

¹²‘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A] ¹³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¹⁴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¹⁵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¹⁶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 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체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¹⁷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쟁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¹⁸㉣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¹⁹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²⁰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²¹㉔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MEMO

6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7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8 [시]와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추가’와 ‘은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가)

¹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²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³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⁴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⁵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⁶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⁷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¹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²그 모른 늪들 은 운는다 흐다마는

³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⁴보리밥 풋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⁵바윗 곳 뽕의 슬긱지 노니노라

⁶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⁷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흘 바라보니

⁸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⁹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¹⁰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¹¹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뎛더라

¹²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¹³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샤

¹⁴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맛더

¹⁵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흐시도다 <제5수>

¹⁶강산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¹⁷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¹⁸아무리 갑고자 험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¹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²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³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⁴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⁵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⁶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⁷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10 (나)의 사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사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사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사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MEMO

11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빻 곳 뭉긔'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12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MEMO

14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가)

¹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²공맹(孔孟)을 빅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³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⁴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⁵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⁶이 둥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헌스홀 가 두려워라

<제3장>

⁷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⁸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⁹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¹⁰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¹¹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¹²㉠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 을 씨드룬가 흐노라

<제8장>

¹³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 홀 제와 태부(太傅) 곁해귀(乞骸歸)* 홀
 제

¹⁴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히리

¹⁵알고도 부지지(不知止)* 하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¹⁶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느뇨

¹⁷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¹⁸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곁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¹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²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MEMO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³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⁴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⁵“내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⁶이에 귀신이 말했다.

⁷“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흥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⁸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⁹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MEMO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7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MO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변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군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썩드른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가)

- 1㉠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흐고
- 2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 3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 4산림에 뭇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5㉡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 6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 7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8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 9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 10칼로 툄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11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험스럽다
- 12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13물이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냐
- 14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 15소요음영* 햏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 16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17㉣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 18답청(踏靑)으란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내일 햏새
- 19아춤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햏새
- 20뭇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 21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 22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23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24㉤ 준중(樽中)이 뷏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 25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 26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 27미음완보(微吟緩步)햏야 ㉥ 시냇뭇의 호자 안자
- 28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29청류(清流)를 곱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 30무릉이 갓갑도다 저 밍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 울울리 : 뽁뽁하게 우거진 속.
- *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1㉠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터니
- 2주모복거(誅茅卜居)흐니 뱃뉘 다 오신다



MEMO

3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4일곡은 어디미오 ㉔ 관암에 히 비친다

5평무(平蕪)에 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6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7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晩)커다

8벽파*에 곱을 썬워 야외로 보노라

9㉕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흔들 엇더리 <3수>

10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11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흙*도 ㄱ이 업다

12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13칠곡은 어디미오 ㉖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14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15한암(寒巖)에 흔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16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17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18㉗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 푸른 물결.

* 소쇄흙 : 기운이 맑고 깨끗함.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MEMO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22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MEMO

23 ㉠~㉦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을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을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4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 7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²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³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 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전한 별세계라. ⁴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⁵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⁶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알,

⁷"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⁸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알,

⁹"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¹⁰또 한 공적에 알,

¹¹"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¹²하였더라.

¹³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¹⁴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¹⁵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알,

¹⁶"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¹⁷하니 한 사람이

¹⁸"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 오리까?"

¹⁹한데, 또 한 사람이,



MEMO

20“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ungs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용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용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21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22“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23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24“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25문제 알,

26“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용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용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27하시니, 좌중이 외쳐 알,

28“우리는 분명 조용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29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30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31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
[B] 익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32갈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33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벼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34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35“연주로부터 오십니까?”

36원수가 답 알,

37“그러하오이다.”

38노옹이 알,

39“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40하였다. 41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알,

42“내가 바로 조용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43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알,

44“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

MEMO

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⁴⁵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⁴⁶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⁴⁷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장을 불러 왈,

⁴⁸“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⁴⁹하니, 홍장이 급히 아뢰길,

⁵⁰“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⁵¹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⁵²“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⁵³홍장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⁵⁴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 작자 미상, 「조웅전」 -

1 읽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장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MEMO

3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MEMO

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용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용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용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용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용이 거론되는 것은, 조용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용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용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용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M E M O

(가)

¹[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²우치 대노 왈,

³“홍익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⁴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⁵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 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 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⁶이에 조정의 신하 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⁷“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⁸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⁹“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¹⁰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A]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¹¹“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¹²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¹³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¹⁴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MEMO

15“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16우치 애걸 알,

17“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18화담 알,

19“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20우치 알,

21“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22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즐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알,

23“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불 지름이 어떠하뇨?”

24우치 알,

25“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26화담 알,

27“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28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흠어 노복을 주며 알,

29“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30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¹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²㉠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 ³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⁴예를 갖추라.

⁵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⁶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⁷전우치가 입을 연다. ⁸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 ⁹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



MEMO

에 보냈느냐?

왕 : ¹⁰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 ¹¹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값아 줄 것이다.

왕 : ¹²황궁하옵시다. ¹³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 했습니다.

전우치 : ¹⁴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푹푹하구나. ¹⁵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¹⁶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¹⁷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¹⁸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¹⁹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²⁰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²¹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²²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²³작고 투박하다. ²⁴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²⁵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 ²⁶왕은 고개를 들라.

왕 : ²⁷예?

전우치 : ²⁸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이까워 그런데...

²⁹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³⁰산수화. ³¹궁녀 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 ³²어떤가?

왕 : ³³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³⁴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 ³⁵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³⁶... 전우치? ³⁷망나니 전우치?

³⁸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친군들을 보면, ³⁹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 ³⁹나를 아는가? ⁴⁰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 ⁴¹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 ⁴²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⁴³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MEMO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⁴⁴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⁴⁵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 ⁴⁶도사 놈이라? ⁴⁷에... 도사는 무엇이나? ⁴⁸ⓐ 도사는 바람을 다 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쇠- 하는 소리와 함께 하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⁴⁹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⁵⁰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⁵¹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⁵²섬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⁵³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⁵⁴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 ⁵⁵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⁵⁶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 ⁵⁷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 ⁵⁸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⁵⁹하하하...

⁶⁰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⁶¹ⓑ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5 (가)의 **회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MEMO

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a~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①

학생 2 :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②

학생 3 :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③

학생 4 :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④

학생 5 :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⑤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MEMO

7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8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므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9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MEMO

- ③ ㉠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가)

1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2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3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4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일,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5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라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6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7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8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9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10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11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12진정 못 데려가겠소? 13떠보려고 이리하시오? 14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15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16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17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18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19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여 푼푼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 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둥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장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여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錚)을 하오리다! 20애고애고 설운지고!

21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낮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22이별 말이 웬 말이오?

23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24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25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26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



MEMO

껏 둘러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²⁷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량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 1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 2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 3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 4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 5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 6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 7 잡을 데 없으시면 ㉔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 8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B]

- 9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 10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 11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 12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 13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 14 날 두고 가겠으면 ㉕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 15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 16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 17 이리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 18 방자 놈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 19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 20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 21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22 ㉖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 23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 24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 25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량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 26 천하장사 향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 27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 28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 29 풋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 30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 31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 32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MEMO

³³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³⁴㉔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³⁵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³⁶잘 가시오

³⁷잘 있거라

³⁸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³⁹나도 ㉔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1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1 ㉔~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㉕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㉖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㉗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㉘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첩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MEMO

14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 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었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었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수능)

¹[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²백공이 알,

³“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어져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⁴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⁵“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 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휘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⁶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알,

⁷“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을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⁸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⁹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¹⁰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¹¹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¹²화설, 장 씨 ^①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MEMO

¹³“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흠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다.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
[A]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¹⁴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¹⁵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무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알,

¹⁶“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¹⁷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알,

¹⁸“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음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익과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
[B]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¹⁹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²⁰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²¹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15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17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M E M O

MEMO

18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 8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¹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원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알,

²“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³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⁴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⁵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A]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⁷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⁸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⁹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¹⁰“금부로 가두라.” / ¹¹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용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백성이 구름 되듯 하더라. ¹²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알,

[B] ¹³“인명이오면 재천이웁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 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¹⁴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¹⁵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¹⁶한림이 울어 알,

¹⁷“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¹⁸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¹⁹하되, 부인이 대경 알,

²⁰“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²¹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²²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 ²³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알,

²⁴“부인은 안심하소서. ²⁵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리까? ²⁶일후 상봉할



MEMO

날이 있으오리다.”

²⁷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껌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²⁸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²⁹‘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³⁰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³¹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³²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³³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³⁴‘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³⁵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화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 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증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 ³⁶하였더라.

³⁷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되듯 하더라. ³⁸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³⁹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⁴⁰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 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⁴¹“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⁴²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⁴³사백 년 사직을 뉘라서 붙들랴. ⁴⁴이 애야, 저 애야. ⁴⁵홍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⁴⁶**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벗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⁴⁷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MEMO

1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 읽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켰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훈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¹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²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³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⁴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⁵“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 ⁶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⁷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⁸“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⁹필성이 국공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리오.

¹⁰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 하루는 ㉢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¹¹“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드나.”

¹²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¹³“㉣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¹⁴“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¹⁵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¹⁶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 이미 반년이라. ¹⁷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 ¹⁸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¹⁹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



MEMO

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붙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²⁰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²¹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 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A] ²²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 하는데, ²³“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 ²⁴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²⁵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²⁶하고 연상을 내어 먹음 흡뻘 같고 청황모 무심필을 덤벼 풀어 백룡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앉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²⁷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설 새 없이 쓴다.

(중략)

²⁸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²⁹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³⁰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³¹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³²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³³ⓐ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³⁴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³⁵‘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³⁶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㉞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국궁수명 :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MEMO

5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 ②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7 [시]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억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 ②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 ⑤ ㉤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수능)

1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2“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나라.”
 3사 씨가 여쭙었다.
 4“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5왕비가 말했다.
 6“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7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8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9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10“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11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12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13명한 정신이 한참만에야 진정되었다. 14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15유모에게 물었다.
 16“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17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18“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19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20“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21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22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23분명 이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24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25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26“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27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28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29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30“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31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32세 사람이 방향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MEMO

33“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34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35크게 놀라며 말했다.

36“어찌 우리를 아는가?”

37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38“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39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40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41“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42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43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44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45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46“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47한림이 물었다.

48“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49노파가 말했다.

50“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51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52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 **꿈**이었다. 53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54“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55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56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57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58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59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60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61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62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침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MEMO

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 : ‘유 한림’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11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¹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 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²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³“석 부인은 실로 적강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⁴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⁵“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⁶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⁷“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뇨?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⁸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⁹“㉠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¹⁰하니, 석파 웃더라.

¹¹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¹²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¹³“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¹⁴여씨 답 알,

¹⁵“㉡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¹⁶상서는 본래 사람을 자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¹⁷“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¹⁸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¹⁹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²⁰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²¹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²²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²³“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MEMO

²⁴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²⁵필적이 산뜻 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흥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²⁶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 부하여 알,

²⁷“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²⁸좌우 시녀 들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 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²⁹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 하게 조사하더라. ³⁰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³¹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³²“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 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 하느냐?”

³³상서 알,

³⁴“어지럽게 굴지 말라.”

³⁵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³⁶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³⁷“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³⁸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³⁹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⁴⁰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⁴¹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⁴²“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⁴³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 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⁴⁴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 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⁴⁵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알,

⁴⁶“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⁴⁷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⁴⁸날이 새 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⁴⁹양 부인이 놀라고 여 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

MEMO

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50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1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15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음모 모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굴'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 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